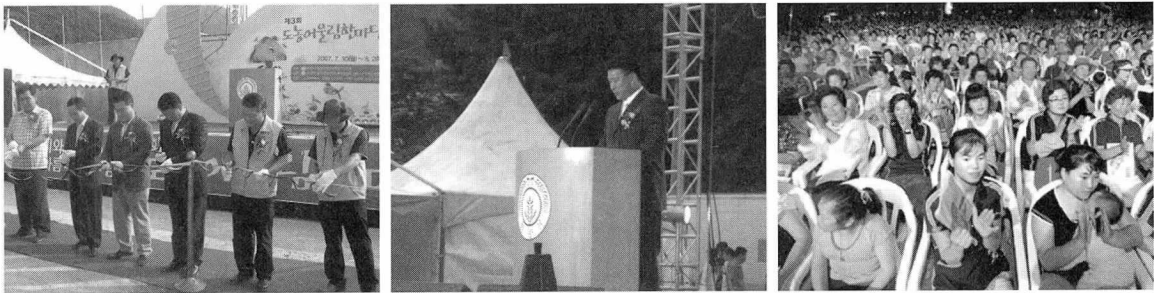


**‘21세기 과학영농실현, JUMP 2007 한농연 충북’ - 제10회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



제10회 충청북도농업경영인대회가 ‘21세기 과학영농실현, JUMP 2007 한농연 충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7월 25~27일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송호국민관광지에서 7,000여 회원 가족들이 함께 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통 국악과 과일의 성지 영동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과학농업을 토대로 내일의 선진 농업을 향해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충북 농업경영인들의 염원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발산됐다.

**‘농업·농촌의 희망, 하나되는 전북농업경영인’ - 제9회 전라북도 농업경영인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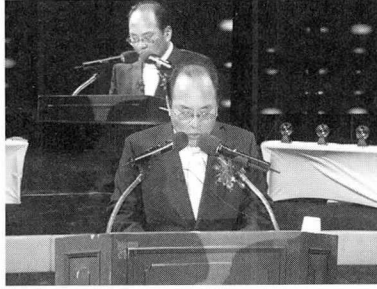


‘농업·농촌의 희망, 하나 되는 전북농업경영인’이라는 슬로건으로 7월 31일~8월 2일까지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일대에서 개최된 제9회 전라북도농업경영인대회가 1만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성료 됐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개최됨으로써 농업경영인들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전북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생각하고 활로를 모색·실천하는 새로운 도약의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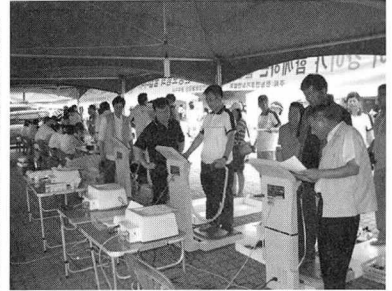
**‘열림과 아우름으로 도약하는 한농연’ - 제9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 대회**

제9회 경상북도농업경영인대회가 ‘열림과 아우름으로 도약하는 한농연’을 주제로 8월 1일부터 3일까지 구미시 강변체육공원에서 1만여명의 회원 및 회원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회를 통해 회원들은 한-미 FTA 중단과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 확립 등 농정현안 해결을 강력 촉구했으며 해체

위기의 우리 농업과 농촌을 되살리는데 앞장서겠다는 각오와 함께 올 대통령 선거에서 농촌현실을 제대로 돌아 보지 않는 후보를 심판하겠다는 결의도 다졌다.



## 경기농업의 명품화! 한농연의 힘으로!!! - 제12회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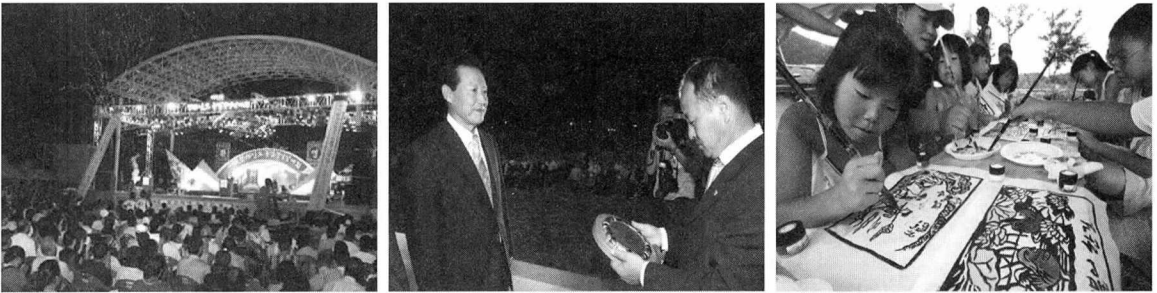
제12회 경기도농업경영인대회가 8월 2일~4일 1만여명의 회원가족이 참석해 조선 500년 도자의 역사를 이룬 경기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에서 성료됐다. '경기농업의 명품화! 한농연의 힘으로!!!'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농업경영인 회원 가족의 화합과 우의를 도모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지혜와 결의를 다짐했다. 특히 농업에 대한 사회 일각의 편견을 바꾸고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시민 참여 부대행사가 알차고 실속있게 진행됐다.

## '한국농업의 자존심! 충남농업경영인!' - 제9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

한국농업의 자존심! 충남농업경영인!' 이라는 주제로 제9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가 8월 10일~12일까지 예산군 덕산온천 관광단지에서 개최됐다. 충남 농업경영인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개방농정에 맞서 희망을 창출하는 농업,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개막식 시작전 열린 이경해 열사 추모 상여놀이에서 참석자들은 열사정신 계승의 의지를 드높였다.



**녹색의 땅 전남농업! 농업경영인의 힘으로!** - 제10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녹색의 땅 전남농업! 농업경영인의 힘으로!’ 라는 가치를 내걸고 8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전남 영암 왕인유적지 일대에서 개최된 제 9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라남도 1만여명의 농업경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도대회는 참가한 전남지역 농업경영인들이 한-미 FTA 등 수많은 개방압력이 몰아치는 가운데 풍전등화의 농업현실에서 한농연은 시대적 사명을 다해 한국농업을 책임지고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생명농업 미래농촌 농업경영인의 힘으로!!’** - 제4회 특·광역시 농업경영인대회



제4회 한국농업경영인 특·광역시 대회가 8월 8일~10일까지 3일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해수욕

장에서 3,000여명의 회원 및 회원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생명농업 미래농촌 농업경영인의 힘으로!!’ 라는 주제로 성료됐다. 특광역시 농업경영인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소비자 농업의 파수꾼으로 농업 전반의 정책 대안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지를 드높였다. 특히 바닷가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피서철과 맞물려 내륙지역의 회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 ‘희망있는 농업창출 하나되는 농업경영인’ - 제9회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제9회 경상남도농업경영인대회가 ‘희망있는 농업창출 하나되는 농업경영인’ 이라는 주제로 8월 16~18일 경남 사천시 실안관광단지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농약의 본고장이자 한려수도의 중심지, 큰 인물이 때를 기다린다는 와룡산으로 대표되는 사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5,0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해 서로간의 우애를 다지고 우리 농업의 발전과 희망을 모색하는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 ‘청정강원, 농업·농촌의 희망 한농연!’ - 제9회 강원도농업경영인대회



농업경영인들의 화합을 다짐하는 제9회 강원도농업경영인대회가 8월 21~23일 횡성군 현대성우리조트에서 6000여명의 회원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청정강원, 농업·농촌의 희망 한농연!’ 이라는 주제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는 강원 청정 농·특산물로 개방화에 대응하자는 열기로 가득했으며 다양한 문화 행사와 놀이로 회원간의 화합을 다지고 희망을 충전하는 자리로 거듭났다. 특히 중앙연합회와 세이브더칠드린이 함께 주관한 농촌무료진료소를 설치 회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